



국무조정실, 인천지역 천명지킴 간담회 개최, 현장 중심 자살예방노력 강화

- 송민섭 본부장, 8.14.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을 찾아가는 천명지킴 간담회 실시

-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본부장 송민섭, 이하 ‘생명본부’)는 8월 14일(금) 인천광역시 및 자살예방센터를 방문하여 지역 유관기관들과 함께 자살예방 대응체계 및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현장 애로·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 현장방문 개요

- 목적 : 전국 16개 광역시·도 자살예방 추진상황 점검 및 현장 의견수렴
- 일시 및 장소 : 8.14.(금), 인천광역시청, 광역자살예방센터
- 참석기관 : 인천시, 자살예방센터, 인천경찰청, 인천소방본부, 인천교육청 등

- 이번 현장방문은 최근 자살 사망자 수 감소 추세*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중앙·지방 간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범국가적 자살 예방 역량 결집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 자살사망자수(잠정)는 올 1~5월 전년동기 대비 733명 감소(8개월 연속 감소 추세)

- 생명본부는 인천광역시를 시작으로 앞으로 두 달에 걸쳐 전국 16개 광역시·도를 직접 방문하여 자살예방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별 추진상황 및 대응체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 간담회에서 현장 관계자들은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중심 자살예방대책 수립·추진의 중요성,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을 위한 보다 폭넓은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의 중요성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 인천광역시 ① ‘교량 자살예방 안전난간 설치’ 의무화 추진, ② 폐파출소를 리모델링하여 누구나 외로움·고립에서 벗어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 ‘마음지구대’ 운영, ③ 이·미용사를 ‘생명지킴이’로 양성하여 이웃의 마음을 살피는 ‘생명사랑 미용사’ 등의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 ① 신축 및 전면 개축 교량 안전난간 설치 의무화 등 조례 개정 추진(‘26.9월)
- ② 마음지구대 - 무료음료, 자조모임, 상담연계 등 제공(‘26.3월~)
- ③ 생명사랑 미용사 운영(‘26.7월~), 기존 택시·약국 등 2,300여명 생명지킴이 有

- 송민섭 본부장은 “자살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살예방의 주체로 참여하는 천명지킴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고, 중앙·지방 정부가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모든 역량을 모으고 있다.”라며, “다시 한번 전국 16개 시·도를 직접 방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이 더욱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올해 1월~2월, 전국 17개 시·도를 직접 방문, 천명지킴 간담회 개최

- 한편, 정부는 자살사망자 감축 추세를 공고히 하고, 틈새 없는 예방을 위해 9대 분야 자살예방 대책*을 순차적으로 수립·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살예방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 ❶ 청소년(6월 발표), ❷경제적 위기자(7월 발표), ❸자살 긴급대응(7월 발표), ❹자살 장소 관리(7월 발표), ❺미디어·온라인(7월 발표), ❻고립·위기가족(8월 발표) ❼돌봄·간병 부담(8월 발표) ❽특수직군·집단보호(이하 8월 추진 중), ❾범죄피해자 회복지원

※ 우울감이나 극단적인 생각으로 힘들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 청소년 상담 전화 ☎1388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법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	책임자	과 장	최선용 (044-200-6372)
		담당자	사무관	김동현 (044-200-639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